

현대 폴란드어 신조어를 통해 바라 본 사회상 연구[※]

고승희

(한국외국어대학교)

Abstract

Koh, Seung-hui. 2017. "A Study on the Social Aspect through Neologism in Modern Polish".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5(3). 29-6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word formation and meaning of newly coined words in modern Polish, and to investigate latest social changes in present Poland reflected in these new words. This paper consists of two main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scribes the linguistic analysis of newly coined words of Polish origin and loanwords from various languages. A large number of English words have flowed into Polish for a variety of reasons. English loanwords occupied about 70% of the database in this study database. The second section examines the socio-cultural changes through an analysis of words in various fields. From the analysis of gathered lexical database we can confirm the acceptance phenomenon of the most frequently, sometimes excessively used English loanwords among the young generation in Poland and look over the changes in Polish society through each word.

Keywords: loanwords in Polish, newly coined words, anglicism, ponglish, socio-cultural changes

※ 본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38661).

1. 서론

본 연구는 현대 폴란드어 신조어의 단어 형성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 폴란드의 사회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용어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신조어는 일상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신조어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자주 사용되는 ‘7포세대’, ‘이케아세대’, ‘문송합니다’, ‘호모인턴스’¹⁾와 같은 신조어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취업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불안감과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2012년 처음 쓰이기 시작한 Grexit(그렉시트)는 주변 국가들로의 EU탈퇴 바람을 확산시키면서 Brexit(브렉시트)와 Porexit(포렉시트)라는 어휘를 파생시켰으며, 실제 영국의 EU탈퇴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처럼 신조어는 그 시대의 변화나 그 사회가 처한 모습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와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다. 폴란드어에도 최근 많은 신조어들이 생성되거나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89년 급진적 체제 개혁을 통한 꾸준한 외국 자본과 새로운 문화의 유입, 2004년 EU 가입,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 Porexit(폴렉시트)의 바람, 2000년 이후 겪고 있는 급격한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폴란드어 어휘 체계 내에서 다량의 신조어들을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신조어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그 사회의 변화와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공부

-
- 1) ‘7포 세대’란 ‘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집마련·희망·꿈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말하면, 이케아 세대는 88만원 세대와 구분되는 신조어로, 78년생부터 86년생까지를 말한다. 이후 추가적으로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하고 산다는 의미의 ‘9포 세대’와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하고 사는 20~30대를 가리키는 ‘N포 세대’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워하는 청년층을 ‘1,000유로 세대’ 혹은 ‘이케아 세대’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오랜 경기 불황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심 없이 체념 상태로 살아가는 청년층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른다(다음백과). ‘문송합니다’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의 의미로 문과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려움을 반영한 문구이다. ‘호모인턴스’는 정규직에 채용되지 않고 인턴만 반복하는 세대.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티슈처럼 사용되고 버려지는 인턴’의 의미로 ‘티슈인턴’이라는 어휘도 사용되고 있다.

해야 하는 한 부분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학습에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신조어의 생성과 확산 속도는 우리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어휘들을 모두 사전에 등재할 수도 없으며, 어떤 어휘들이 사전 등재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의 폴란드어 사전에는 대부분 89년 체제 전환기 때나 막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 무렵의 어휘 정도까지만 등재되어 있다. 최근 20여 년간 폭발적으로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엄청난 사회 -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관련 어휘들은 사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전에서 어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해당 신조어의 정확한 의미와 용례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웹 페이지를 검색하고 해당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찾아 의미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등의 또 다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장 교육에서 신조어 교육에는 소홀해 왔다. 엄청난 양의 신조어에 대한 습득을 학습자 개인의 몫으로 치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조어와 관련 표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 언어와 그 사회에 대해 보다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신조어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신조어의 생성 원리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신조어의 언어학적 분석은 앞으로 생겨나게 될 무한의 신조어들을 모두 교수할 수 없고, 학습자도 모든 신조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어휘의 생성은 일반적으로는 그 언어의 조어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 원리를 이해한다면 처음 접하는 신조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학적 분석과 함께 어휘에 반영된 폴란드 사회와 문화적 변화를 교수하는 것은 학습자가 폴란드어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수집된 연구 대상 어휘들을 바탕으로 언어학적 분석과 함께 어휘를 통해 폴란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최근 20여 년간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폴란드어 신조어 및 표현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신조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무엇이 신조어이고, 무엇이 유행어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 어휘를 2016년 6월 29일까지 바르샤바 대학교 언어관찰부(Observatorium Językowe Uniwersytetu Warszawskiego)의 <최신 폴란드어 어휘집(Najnowsze Słownictwo Polskie)>²⁾을 통해 획득한 어휘들과 몇몇 관련 논문들³⁾에서 수집한 총 2,000개로 한정했다.

<최신 폴란드어 어휘집>은 2000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생겨난 어휘들을 인터넷 사용자들 통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지속적인 어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이 어휘집은 고유어와 차용어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어휘의 생성 기제, 문법 정보, 차용 원어, 어휘가 쓰인 매체, 사용일자와 그 용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hejtować/hejcić(악플을 달다)는 영어의 hate에서 차용된 명사 hejt에서 파생된 동사로 단순히 그 대상이 '싫다'의 의미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다'를 뜻한다. 2013년 처음 등록된 hejtować는 불완료형 동사로 완료형로는 zhejtować가 있으며, 형태적 활용과 함께 각종 언론에서 언급된 hejtować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문장들을 어휘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집된 어휘들은 일차적으로 어휘 형성에 따라 고유 신조어와 차용 신조

2) 미로스와프 반코(Mirosław Bańko), 마치에이 체세프스키(Maciej Czeszewski), 얀 부르진스키(Jan Burzyński)의 편집 하에 만들어진 온라인 신조어 어휘집으로 바르샤바대학교 언어관찰부의 기준에 따라 신조어를 선정하여 목록화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폴란드에서 발행된 대규모 폴란드어 사전이나 외래어 사전에 포함되지 않은 어휘를 중심으로 어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3) <최신 폴란드어 어휘집>은 명사, 동사 어휘들이 다수이므로 여타 품사의 신조어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관련 논문인 Waszakowa(2009, 2011), Witalisz(2014a, 2014b, 2015), Sękowska(2012), Handke(2007)의 일부 어휘들을 발췌하여 포함시켰다.

어로 나뉜다. 고유 신조어는 그 어휘가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어휘의 의미 변화나 어떠한 단어 형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차용어는 차용의 방법에 따라 원어 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는지, 음차 표기 한 것인지와 차용 시 어휘의 파생이나 합성이 일어났는지 등을 고려하여 분류되었다. 또한 원어를 일대일 번역한 번역 차용어나 단어의 일부만 차용한 혼성 차용, 원어의 확장된 의미까지 차용한 의미 차용과 어휘의 형태는 차용하지 않고 개념만을 차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생성한 개념 차용으로 나누었다. 언어학적 분석을 마친 어휘들은 분야별로 다시 나누어 각 분야별 어휘를 통해 관찰되는 폴란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3. 언어학적 분석

3.1. 고유 신조어

고유 신조어는 연구 대상 어휘 중 약 1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차용 신조어에 비해 그 비중이 적다. 활발한 국제 교류와 세계화로 인해 외국어나 국제 단어⁴⁾를 차용하여 신조어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유 신조어는 기존 어휘를 활용하여 폴란드어의 단어 형성법에 따라 파생 또는 합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어휘들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기존 어휘의 의미 확장으로 인해 새로운 뜻을 지니기도 한다.

4) 언어학에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또는 국제 단어(international word)는 동일하거나 적어도 비슷한 의미와 어원의 여러 언어에서 발생하는 외래어이다. 근원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연속적인 차용의 결과로 몇몇 다른 언어들에 이러한 단어들 존재하게 되었으며, 다른 언어 간에도 이해 가능하도록 발음과 철자법이 유사하다. 유럽의 국제 단어들은 라틴어나 그리스어 어원의 어휘들이 대부분이다(Wikipedia).

3.1.1. 단어 형성법에 따른 분류

고유어에는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단일어보다는 기존 어휘에 다양한 접사들이 결합되어 파생어가 만들어지거나 두 개 이상의 어기들이 결합돼 만들어진 합성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기존 어휘를 활용한 단어 형성이 언중들에게 새로운 어휘가 전파되는 데에 있어 더욱 큰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명사]

- (1) ㄱ. 파생 ① szalikowiec[szalik+-owiec] 목도리를 두르고 응원하는 스포츠 경기의 관중.
② kujonki[kujon+-ki] 두꺼운 빨테 안경
③ prezydentówka[prezydent+-ówka] 대통령의 딸
- ㄴ. 합성 ① bronkobus[bronko+bus] Bronisław Komorowski의 선거유세용 버스
② karomierz[kar+-o+mierz] 규칙위반에 따른 벌금체계
③ lodożerca[lód+-o+-zerca] 아이스크림 성애자

전형적인 파생법에 의해 만들어진 szalikowiec는 ‘목도리’를 의미하는 명사 szalik에 접미사 -owiec가 결합되어 축구에 열광하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도리를 두르고 응원하는 스포츠 경기의 관중’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kujonki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일컫는 kujon에 접미사 -ki를 붙여 그러한 학생들이 쓸 법한 ‘두꺼운 빨테 안경’이라는 단어가 되었다. prezydentowa(대통령의 부인)나 prezydentówka(대통령의 딸)는 기존에는 구 단위의 표현인 żona prezydenta(대통령의 부인)나 córka prezydenta(대통령의 딸)만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prezydent에 ‘아내’를 뜻하는 접미사 -owa와 ‘딸’을 의미하는 접미사 -ówka가 결합되어 한 단어의 파생어로 표현이 가능해졌다. 위 예(1)의 ㄴ과 같이 두 개의 어기가 결합된 합성어들도 있다. bronkobus⁵⁾는 정치인의 이름인 Bronisław와 autobus가 결합된 형태로 선거 유세를 위해 사용했던 ‘브로

www.kci.go.kr

니스와프의 선거 유세용 버스'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외에도 szydłobus, tuskobus, dudabus⁶⁾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선거 기간에 등장한 신조 합성어이다. lodożerca의 žerca⁷⁾는 '매니아'의 뜻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극도로 무엇인가를 좋아함'을 뜻한다. 그러나 이 어휘는 현대 폴란드어에서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여 czekoladożerca (초콜렛성애자), serialożerca(TV시리즈물성애자), reklamożerca(TV광고 성애자), sushiżerca(스시성애자) 등과 같이 '~성애자/매니아'의 합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형용사 신조어는 그리 수가 많지 않다. 대부분 기존 동사나 명사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어휘들로 주로 구어적으로 쓰인다. 형용사의 경우 파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어휘는 본 연구 대상 어휘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형용사]

- (2) ① badziewny/badziewiarski/badziewiasty 추한, 결점투성이의, 나쁜, 끔찍한
[= okropny, wadliwy, zły]
- ② debilny 바보같은, 우둔한 [= głupi]
- ③ kumaty 이성적인, 지적인 [= rozumny, inteligentny /← ㉠kumać(=rozumieć)]

동사 신조어로는 동사구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를 하나의 동사로 파생시킨 어휘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동사구인 pić kawę(커피를 마시다)

5) 'Bronisław의 선거유세용버스'를 원래대로 표현하면 autobus Bronisława Komorowskiego podczas wyborów prezydenckich이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는 폴란드의 5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6) 도날드 투스크, 2007년 폴란드의 14대 총리가 되었고, 2014년 2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취임했다. 베아타 시드워, 2015년도 16대 폴란드 총리로 취임하여 현직에 있다. 안제이 두다, 2015년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폴란드의 6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다.

7) 독립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접미사로 다루기도 한다(Wikistownik).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어휘들이 선행어휘와의 결합에서 전형적인 합성의 단어 형성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합성어로 분류하였다.

에서 목적어인 kawa를 이용해 kawować(커피를 마시다)라는 한 단어의 동사를 만들어냈다. 이외에도 동사구인 uczyć się/odrabiać lekcje(수업을 하다)는 한 단어의 lekcjować로, jeździć na rowerze(자전거를 타다)는 rowerować로 파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되도록 짧게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언중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접미사 -ować는 폴란드어 내에서 생산성이 높은 동사파생접미사 중 하나이다. 고유어뿐만 아니라 외래어 차용에서도 이 접미사를 활용한 다양한 파생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동사]

- (3) kawować 커피를 마시다, herbatkować 차를 마시다,
rowerować 자전거를 타다. lekcjować 수업을 하다.

3.1.2. 의미 변화에 따른 분류

앞선 단어형성법에 따른 고유 신조어 이외에도 기존 어휘의 변형 없이 의미만을 확장시켜 사용하는 의미적 신조어도 있다. 그러나 단어형성법에 따른 유형보다 그 수는 연구 대상 고유 신조어의 약 4% 정도만 차지할 정도로 매우 적다.

[명사]

- (4) ① stoik 기존 의미: 단지(피클 등을 담은 용기)
새 의미: 공부나 취업을 목적으로 바르샤바에 거주하는 타지방 사람
② minutki 기존 의미: minuta(분)의 지소형
새 의미: (회의에서의) 중요사항 요약
(이메일로 회의 참가자들에게 발송)
③ nerka 기존 의미: 허파(신체일부), 새 의미: 힙색
④ kaloryfer 기존 의미: 라지에이터(난방기), 새 의미: 식스팩

stoik은 원래 ‘피클을 담은 유리 항아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새로 의미가

www.kci.go.kr

추가되어 현재는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바르샤바에 거주하는 타지방 사람’을 뜻하는 어휘로도 쓰인다. nerka는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부위인 ‘허파(콩팥)’를 가리키는 어휘이지만, 형태적으로 유사하게 생긴 ‘힙색’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kaloryfer도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어휘의 의미 확장이 일어난 예이다. 원래는 ‘난방기(라지에이터)’를 뜻하지만 폴란드어에서는 ‘식스팩’을 의미하기도 한다.⁸⁾ 영어의 radiator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차용 과정에서 형태적으로 유사한 기존 어휘인 kaloryfer에 새롭게 ‘식스팩’의 의미가 추가된 것이다.⁹⁾

명사 이외에도 형용사나 동사에서도 의미 확장의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형용사]

(5) ① różowy 기존 의미: 분홍색의

새 의미: (정치) 우파와 좌파의 중간적 위치의 견해를 가진 사람

② wyczesany 기존 의미: 잘 빗질 된, 새 의미: 멋진, 특별한 (Chaciński)

[동사]

(6) ① główkować 기존 의미: (축구) 머리로 공을 치다. 헤딩하다.

새 의미: 곰곰이 생각하다(= intensywnie myśleć)

② dosolić 기존 의미: 소금을 뿌리다.

새 의미: 누군가를 괴롭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

형용사인 różowy는 원래는 ‘분홍색(장미색)’을 의미하는 색깔 형용사이거나 정치 분야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정치적, 사상적 경향이 나 노선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한국어의 ‘회색분자’와 유사한 뜻으로 사용된다.

8) 한국어에서도 ‘빨래판 복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폴란드어에서도 kaloryfer와 동일한 뜻으로 tarki na brzuchu(배 위의 빨래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9) kaloryfer 외에도 번역차용한 sześciopak도 ‘식스팩’의 의미로 함께 쓰이고 있다.

동사인 *główkować, dosolić*는 구체적 행위를 나타내는 1차적 의미에서 추상적 행위를 나타내는 2차적 의미로 확장된 예이다. 2차적 의미는 주로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많이 쓰인다.

고유 신조어의 전체 어휘를 살펴보면 기존 어휘에서 형태적 또는 의미적 변화가 일어나 생겨난 어휘들이 대부분이며,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어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신조어 생성에 있어 기존 어휘를 활용한 조어가 훨씬 언중들에게 쉽게 인식되고 널리 쓰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3.2. 차용 신조어

신조어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권 언어 등에서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고유 신조어보다는 차용 신조어의 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폴란드어에서도 전체 연구 대상 어휘의 86%가 차용 신조어이고, 그 중 약 70%가 영어에서 차용한 신조어이다. 과거의 차용어는 주로 프랑스, 독일이나 러시아 등 인접국의 언어에서 들어온 어휘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영어에서 들어온 어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어가 전세계적으로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과 다르지 않으며, 8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개념인 *wolne jedzenie*(슬로푸드)와 같이 어원적으로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시작되었지만 폴란드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영어를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 차용 어휘로 분류되는 것도 있다.

본 절에서는 외국어 어휘가 들어와 폴란드어 어휘체계에 자리잡은 차용 신조어들을 어휘 차용의 방법에 따라 원어 그대로 차용, 음차표기, 번역차용, 혼성차용, 의미-개념 차용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2.1. 원어 그대로 차용

원어의 형태와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형태 변화 없이 의미만 변화

www.kci.go.kr

되어 사용되는 어휘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원어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는 이 유형의 어휘들은 문장 속에서 폴란드어 문법 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어형 변화 없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많은 어휘들이 철자체계만 따르지 않을 뿐 *zostać freelancerem*(프리랜서가 되다)과 같이 폴란드어 문법 규칙에 따라 어형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승만(2010a: 8)에 따르면 외국어를 차용함에 있어 대부분의 언어는 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국어의 문법 체계 속에서 어휘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이 유형의 어휘들이 폴란드어의 문법 체계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자국어로의 어휘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형태적인 면에서 외국어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외국어의 지휘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사]

(7) ① *cosplay* 코스프레

② *open space* 오픈 스페이스, 파티션으로 나누지 않은 사무 공간

(⇒¹⁰) *otwarta przestrzeń*)

③ *baby shower* 베이비 샤워(⇒ *przyjęcie bociankowe*)

④ *freelancer* 프리랜서(⇒ *wolny strzelec*)

일부 어휘들은 동일한 뜻의 폴란드어 어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의 형태 그대로를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freelancer*는 *wolny strzelec*, *baby shower*는 *przyjęcie bociankowe*, *open space*는 *otwarta przestrzeń*이라는 대응 표현이 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영어 어휘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는 영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폴란드어 어휘를 사용하기보다 영어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¹⁾

10) ⇒ 의 어휘들은 대체 가능한 폴란드어 표현들이다.

11) 유승만(2010b: 150~151)에서는 외래어 차용의 여러 원인 중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차용대상 언어가 상위언어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러시아어에서도 영어를 대부분의 언중들이 상위 언어로 인식하고 영어 어휘를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명사 이외에 형용사와 부사 차용어들도 차용 원형 그대로 쓰이는 것이 자주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수식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는 피수식어의 자격에 따라 어형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폴란드어 철자법을 따르지 않고, 영어 철자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어형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폴란드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 차용 어휘인 cool, full, hard, trendy가 대표적으로 어형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어휘들이다(Handke 2007: 42).

[형용사, 부사]

(8) ① cool, hard, self, soft, trendy, bingo, super

예) To jest cool!(멋지군!) Mamy full jedzenia.(음식으로 가득 차 있구나.)

Sprzedawał hard narkotyki.(그는 강한 마약을 샀다.)

To była trendy impreza.(트렌디한 파티였어.)

원어 철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차용어 중에는 원어가 갖지 않는 의미를 폴란드어에서 새롭게 지니기도 하는데, 대부분 차용 과정에서 원어의 의미가 확장 또는 축소되어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들이다. 영어의 drink는 ‘음료나 주류’ 또는 동사적으로 ‘음료나 주류를 마시다’를 뜻하나 폴란드어에서는 그 의미가 축소 차용되어 명사로 ‘알코올 음료’만을 뜻한다. 폴란드어에서 “Idziemy na drinka!”라고 하면 “차나 음료를 마시러 가자!”의 의미가 아니라 “가볍게 술을 한잔 하러 가자!”의 의미인 것이다. churching은 영어가 갖지 않는 새로운 의미로 폴란드어에서 사용된다. 영어의 ‘교회’를 뜻하는 church에 ‘진행’의 의미를 갖는 영어 접미사 -ing을 결합시킨 것으로 원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예배드리기 좋은 성당을 찾아다니며 미사를 드리는 행위’를 뜻한다. churching¹²⁾은 최근 폴란드의 중

12) 영어에서 동사에 -ing를 덧붙여 shopping, cooking과 같은 동명사나 명사를 만드는 것을 폴란드어에서 ingowanie현상이라고 한다. 폴란드어 내에서 폴란드어 어근이나 영어에서 차용된 어근에 -ing를 붙임으로써 하나의 명사를 만드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젊은이들의 언어 속에서 이러한 ingowanie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plazing이나 szafing과

교 생활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휘이다.

(9) ① drink eng. 음료와 주류, pl. 알코올 음료, 술을 마시는 것¹³⁾

② churching eng. 1.산후 감사 예배, 2. 순산 감사식

pl. 젊은이들이 clubbing하는 것처럼 가톨릭 신자들이 예배드리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미사 드리는 행위
(⇒ wędrówki wiernych) (Gotowska)

차용어 어근에 폴란드어 단어형성법에 맞게 파생 접사를 덧붙여 새로운 차용 신조어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facebook에 사람을 뜻하는 폴란드어 접미사인 -owicz가 첨가되어 facebookowicz(페이스북 사용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으며, 영어 light-emitting diode의 축약어인 LED에 접미사 -ówka가 붙음으로써 ledówka(LED전구)라는 어휘가 생겨났다. 형용사의 경우는 영어 원형 cool에 폴란드어의 대표적인 형용사 파생 접미사인 -owy를 붙여 coolowy를 만들어 앞선 형태 변화를 하지 않은 cool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cool과 달리 이렇게 형태 변화를 겪은 어휘들은 문장 내에서 반드시 폴란드어 어형 변화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명사]

(10) ① facebookowicz(facebook+-owicz) (남자)페이스북사용자

② youtuberka(youtuber+-ka) (여자)유튜브 사용자

③ normcoreowiec(norecore+-owiec) (남자)놈코어룩을 입는 사람

④ chanelka(chanel+-ka) 샤넬백

⑤ ledówka(LED+-ówka) LED전구

같이 영어에 없는 어휘들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 있다. ingowanie에 대해서는 본고 4.1.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3) drink에 동사파생접미사 -ować를 덧붙여 동사 drinkować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도 축소된 의미인 '술을 마시다'의 의미로만 쓸 수 있다.

[형용사, 부사]

- (11) coolowy(←cool, 쿨한), blogowy(←blog 블로그의), randomowy/randomowo (←random, 무작위의), fullerski(←full, 가득찬), baristerski(←barista, 바리스타의), celebrycki(←celebrity, 유명인의)

[동사]

- (12) mobbingować 모빙하다, 왕따시키다. tweetować 트위터하다,
facebookować(fejsbukować) 페이스북하다.
googlować/wygooglować 구글을 검색하다.
drinkować, drinknąć, podrinkować, nadrinkować się(←drink) 술을 마시다.

최근 생겨난 폴란드어 신조어들을 살펴보면 신개념이나 기술 관련 어휘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폴란드어 어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어휘를 그대로 받아들여 폴란드어 접미사를 덧붙임으로써 어형 변화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현상이 강하다. 특히 명사나 형용사와 달리 원형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동사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파생 신조어들은 폴란드어 어휘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보다 원어 그대로를 받아들여 사용함으로써 신개념을 빠르게 이해시키고 대중화시키는 데에 더욱 효율적이며, 폴란드어 문법 체계에 받아들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의 철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폴란드어에서 읽기(발음)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문법 체계에도 혼란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두 언어 모두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발음에서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용 어휘들을 읽을 때에는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원형 그대로를 쓰고, 원어 발음으로 읽거나 또는 원어의 발음을 폴란드어로 음차 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facebookować를 fejsbukować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어휘들이 아직 완전한 어휘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2.2. 음차 표기

차용 과정에서 원어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폴란드어 철자법에 따라 음차 표기하여 받아들인 음성적 차용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음차 표기 어휘들은 원어 그대로 차용한 유형과 달리 폴란드어 음운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파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어휘가 문장 내에서 문법 규칙에 따라 어형 변화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명사]

- (13) ① hasztag(← eng. hashtag) 해시태그
- ② lajfstail(← eng. lifestyle) 라이프스타일(⇒ styl życia)
- ③ hejt(← eng. hate) 공격적, 부정적 성향의 댓글

위의 예 (13)①의 hasztag와 같이 폴란드어로 대체하기 어려운 어휘도 있지만 hejt는 폴란드어의 기존 어휘인 nienawiść(미움, 증오)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hejt는 인터넷 상에서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댓글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nienawiść와 완전히 동일한 뜻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lajfstail은 기존 어휘인 styl życia로 의미 변화 없이 대체 가능하지만 폴란드어 어휘 대신 음차 표기한 lajfstail이 쓰이고 있음을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유행을 주도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나 관련 매체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젊은 세대의 스노비즘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차 표기한 어근에 여러 가지 파생 접미사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파생 신조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 중 -ować접사의 결합으로 파생된 동사들이 눈에 띈다. 이 -ować접미사는 고유어뿐만 아니라 외래어 어근과도 잘 결합한다. 한국어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여 동사를 만들 때 원어에 ‘-하다’ 접미사를 덧붙여 ‘업그레이드하다, 업데이트하다, 다운로드하다’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¹⁴⁾

[명사]

- (14) ① biforek/biforka(← before+ek/-ka) 식전 파티
- ② żelowiec(← żel+owiec) 머리에 강력한 젤을 발라 꾸미고 다니는 남자
- ③ fejsbukowicz(← fejsbuk+owicz) 페이스북 사용자

biforek은 영어의 before를 음성 차용한 후 접미사 -ek을 덧붙여 행사 이전 흥을 돋우기 위해 하는 ‘식전 행사’를 뜻한다. 동사인 biforować로도 차용 파생되어 ‘식전파티에 참석하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fejsbukowicz는 앞선 원어 그대로 차용한 facebookowicz와 동일한 어휘를 음차 표기한 것이다. 이처럼 음차 표기한 어휘들은 폴란드어로 발음에는 용이하지만 원어와 형태적으로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두 어휘가 동일한 개체를 가리키는지 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지 대한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형용사]

- (15) ① 차용어 어근+접미사 -owy, -ski, -erski, -owski, -ny 등
- czatowy(←chat), czilautowy(←chillout), lajtowy(←light), oldskulowy(←oldschool), paŕerowy(←power), trendowy(←trendy), globalny(←global) → ogólny, całkowity), gejowski(←gay), trendseterski(← trendsetter)

[동사]

- (16) [차용어 어근 + 동사화 접미사 -ować]
- biznesować(←business)/pobiznesować, ubiznesować 사업하다, 거래하다.
- fristajlować(←free style)즉흥적으로 행동하다. apdejtować(←update) 업데이트하다, smsować(←sms) 문자하다. spidować 빨리 가다, 마약하다, kamerować 촬영하다.

위 형용사와 동사들은 대부분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14) 접미사 '-하다'는 영어의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오픈하다, 터프하다, 리허설하다, 드라이브하다'와 같이 한국어에서 다양한 외래어 동사를 만들어낸다.

않는다. 그러나 spidować와 kamerować는 원어인 speed, camera가 갖고 의미 이외에 폴란드어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spidować는 ‘빨리 가다’의 의미를 기본으로 은어적으로 ‘마약하다’의 뜻으로 쓰이며, kamerować는 원어는 camera가 명사적 의미만 갖고 있지만 폴란드어에서는 ‘(카메라로)촬영하다’의 동사적인 뜻도 갖고 있다. 차용 과정에서 의미 변화가 일어난 예이다. 그러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 과정에서는 이러한 은어적 표현은 지양하고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 중심으로 교수해야 할 것이다.

3.2.3. 번역 차용

번역 차용은 원어를 낱말로 쪼개어 의미 단위로 대응하는 폴란드어로 번역하여 차용한 것을 말한다. 폴란드어에서 이러한 번역 차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아래 예와 같이 영어 어휘를 일대일 번역한 복합어구 형태의 표현들이다.

- (17) ① autobus szynowy(← eng. railbus) 궤도버스
- ② papieros elektroniczny(← eng. electronic cigarette) 전자담배
- ③ trener osobisty(← eng. personal trainer) 개인 트레이너
- ④ dzieciorosty(← eng. kidult) 키덜트
- ⑤ kompetencje miękkie(← eng. soft skill) 소프트 스킬

또 다른 하나는 첫 유형과 마찬가지로 복합어구로 번역한 뒤 한 번 더 형태 변화가 일어나 한 단어의 파생어나 합성어로 만들어진 어휘들이다. 이는 경제성으로 인해 번역된 어휘의 일부를 절단하여 두 어휘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결합시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번역 차용된 모든 어휘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표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래 어휘들은 1차 번역 차용 복합어구가 있으면서 2차 파생어 또는 합성어가 존재하는 예들이다.

[구 > 파생어]

- (18) ① telefon komórkowy > komórka (← eng. cellular phone) 휴대폰
- ② karta chipowa > chipówka (← eng. (IC chip) smart card) IC칩 카드
- ③ apart cyfrowy > cyfrówka (← eng. digital camera) 디지털 카메라

[구 > 합성어]

- (19) ① plan biznesowy > biznesplan¹⁵⁾ (← eng. business plan) 사업계획
- ② automat biletowy > biletomat (← eng. ticket machine) 매표기

‘자동판매기’를 의미하는 automat 관련 합성어들은 현대 폴란드어에서 비교적 생산성이 높다. 영어 어휘를 일차적으로 번역 차용하여 (19)②와 같은 복합어구의 automat biletowy가 만들어지고, 이차적으로 하나의 합성어인 biletomat가 형성된 것이다. 후행하는 형용사의 어근(x)에 접요소 -o, 그리고 automat의 일부인 -mat를 결합시킨 [x+-o+mat]의 구조를 지닌 어휘들은 현대 폴란드어에서는 대부분 ‘자동화기기’를 뜻한다.¹⁶⁾ kawomat(커피자판기), mlekomat(우유자판기), numerkomat(번호표발행기), parkomat(주차비정산기)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동일한 구조의 wypłatomat(출금기), wpłatomat(입금기), urzędomat(서류발급기), zusomat(사회보장보험 서류발급기), chlebotmat(빵자판기)¹⁷⁾는 1차 복합어구 형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automat urzędowy의 구 표현은 쓰지 않고 합성어 형태인 urzędomat만을 사용한다. 이것으로 보아 이미 폴란드어 내에서 [x+-o+mat]의 구조가 하나의 합성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15) Otwinowska-Kasztelanic(2000)에서는 오늘날 myjnia samochodowa와 plan biznesowy 대신 automyjnia나 biznesplan을 사용하는 것은 car wash, business plan과 같이 한정어가 앞서 나타나는 영어의 구조를 차용하여 사용한 예라고 말한다(Sztencel 2009: 8 재인용). 이는 단순한 어휘 차용을 넘어 영어의 구조까지 차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보여준다.

16) 폴란드어에서 -omat를 갖는 신조어들의 시작은 bankomat라고 할 수 있다. bankomat는 automat(telefoniczny)인 과거의 ‘전화 자동 연결 시스템’을 나타내는 어휘의 일부인 -mat와 bank를 결합해 형성된 합성어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다양한 합성어들이 만들어졌다(Kołodziejek).

17) chlebotmat와 automat chlebowy의 두 가지 형태가 다 쓰이지만 의미적인 차이를 지닌다. 전자는 ‘빵자판기’를 의미하지만 후자는 ‘제빵기’를 의미한다.

3.2.4. 혼성 차용¹⁸⁾

혼성 차용은 부분 바꿈의 방식으로 어휘를 차용한 것이다. 번역이 불필요한 국제어나 외래 접사¹⁹⁾를 사용하는 어휘들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면 eurosierota나 pracaholik은 번역이 불필요한 외래 접사 euro-와 -holik이 폴란드어 어근인 sierota, praca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혼성 차용어이다.

〈외래접사+폴란드어 어근〉

- (20) ① bioatak[← bio-+atak(공격)] 생화학 공격
② cyberńkanie[← cyber-+ńkanie(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③ e-zakupy[← e-+zakupy(쇼핑)] 인터넷 쇼핑
④ ekotorba[← eco- + torba(가방)] 에코백(친환경 가방)
⑤ eurosierota[← euro- + sierota(고아)] 유럽고아²⁰⁾

혼성 차용어에 많이 사용된 접두/접미사에는 anty(anti)-, bio-, cyber-, e-, eko(eco)-, euro-, foto-, info-, mini-, psycho-, semi-, -holik(holic), -izm(ism), -fobia 등이 있다. e-는 현대 폴란드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서 생산성이 높은 접두사로 많은 신조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²¹⁾ 폴란드어

18) Wikipedia의 ‘Zapóżycznia językowe’에서 분류하고 있는 차용 중 Zapóżycznia sztuczne나 Hybrydy에 속하는 어휘들이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혼중/혼성 차용어에 포함된다(Wikipedia Polska).

19) 고승희(2011: 46~50)에서는 국제어 접사들을 유사접두사로 다루고 이들 유사접두사와 하나 이상의 어기가 결합되는 어휘를 합성명사류로 분류하였다. 이는 폴란드어에서 유사 접두사류들이 sukienka mini(미니 드레스), cyber kawiarnia(사이버 카페), Bądź eko!(친환경적으로 살아라!)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휘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20) 유럽에 버려진 또는 입양된 고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유럽 선진국으로의 취업 이민으로 인해 폴란드에 혼자 남겨져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아이들을 일컫는다.

21) e-biblioteka(전자도서관), e-biuro(가상사무실), e-czytelnik(e-book의 독자), e-księgarnia(인터넷서점), e-portmonetka(전자지갑), e-sklep(전자상점), e-terrorysta(사이버테러리스트), cyberatak(사이버 공격), cyberholizm(사이버 중독), cyberńkanie(사이버 스토킹),

에서도 자국어의 접두사로 바꾸지 않고 이러한 접두사와 접미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어휘들은 두 요소 중 한 부분은 폴란드어로 바꾸고 나머지 한 요소는 영어 어휘를 사용한 합성어 또는 복합어구이다. 앞선 예들과 달리 두 요소 모두 어근의 자격을 갖는 어휘들이다.

〈영어+폴란드〉

- (21) ① dwuklik[← dwu(pl.둘)+click(eng.클릭)] 더블클릭
- ② wielopak[← wiel(e)(pl.많은)+pack(eng.꾸러미, 다발)] 묶음팩, 묶음상품
- ③ wishlista[← wish(eng.희망) + lista(pl.목록)] 희망목록

dwuklik의 dwu는 double을 뜻하는 폴란드어이고, klik은 영어의 click을 음차 표기한 것이다. wielopak의 wiele는 폴란드어로 ‘많은’을 의미하고, pak은 영어의 pack을 음차 표기하였다. wishlista는 선행 어휘인 wish는 영어 원어 그대로이고, 후행 어휘인 lista는 ‘목록’을 의미하는 폴란드어이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하나의 혼성차용어가 되었다. 이처럼 혼성 차용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폴란드어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차용한 외래어는 원어 그대로 또는 음운 차용을 하거나 번역 차용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2.5. 의미 - 개념 차용

의미 차용은 의미 확장이 일어난 어휘를 폴란드어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차용 원어의 원 뜻과 대응되는 폴란드어 어휘에 확장된 의미를 적용시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미 있는 폴란드어 어휘에 원래 없던 의미가 새롭게

cyberprzestępca(사이버 범죄자), cyberrandka(사이버 데이트), cyberwojna(사이버 전쟁) 등 본 연구에서도 e-를 접두사로 하는 어휘 45개, cyber-를 접두사로 하는 어휘 28개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 대상 어휘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더욱 많은 어휘들을 웹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많은 정보통신 관련 어휘들이 혼성 차용의 형태를 취한다.

들어감으로써 다의어적 성질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어의 mouse(쥐)와 동일한 의미의 폴란드어 mysz(쥐)에 영어의 확장된 의미인 ‘컴퓨터 마우스’를 적용시켜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 차용이 일어난 어휘들의 예는 아래와 같다. 아래 예에서 보듯이 정보 통신과 관련된 기본 어휘들이 대부분 의미 차용의 방식에 따라 차용되었다.

〈표 1〉 의미 차용의 예

폴란드어	원뜻	확장된 의미	차용원어
mysz	쥐	컴퓨터 마우스	mouse
sieć	망	통신망	web
okno	창문	컴퓨터 윈도우(창)	window
chmura	구름	클라우드	cloud
ćwierkać	지저귀다	트위터하다	tweet
ciasteczko	쿠키	인터넷 접속 시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사용자의 개인 신상 파일	cookie
skórka	피부	컴퓨터 스킨: 디자인의 변경이 가능한 화면 표시 부분	skin

개념 차용은 외국어에서 개념만을 차용한 것으로 폴란드어에서 전혀 다른 뜻의 기존 어휘를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나 표현을 만드는 것이다. 원어와의 일대일 대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번역 차용과 차이가 있으며, 이미 있는 차용원어와 동일한 의미의 폴란드어 어휘나 표현에 의미 확장으로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차용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영어의 think tank를 표현하기 위해 폴란드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복합어구인 zaplecze intelektualne(intellectual background←eng. think tank)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구 구성의 개별 요소인 zaplecze(background)와 intelektualne(intellectual)는 이미 있던 어휘로, 각각의 단어로는 think tank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구인 zaplecze intelektualne를 만듦으로써 영어의 think tank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książka do słuchania(book for listening)나 książka mówiona(talking book)도 개념 차용의 예이다. 이는 영어의 audiobook에서 개념만 차용한 것으로 혼

성 차용어인 audioksiążka(←audiobook)와 함께 두루 사용되고 있다. bezpilotowiec의 경우도 ‘무인 비행기’인 dron의 개념을 도입하여 ‘~없는’의 뜻을 갖는 접두사 bez-와 ‘조종사’를 의미하는 pilot 그리고 사물을 뜻하는 접미사 -owiec를 합쳐 새로운 단어인 bezpilotowiec를 만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어휘들이 개념 차용어들이다.

〈표 2〉 개념 차용의 예

신조어	원뜻	차용으로 인해 폴란드어에서 새롭게 생성된 의미	차용 원어
przybić zółwka	zółwik 거북이, przybyć 치다	주먹(pięść)을 마주치며 인사하다	to get a fist bump
zaplecze intelektualne	(지적 배경)	두뇌 집단(싱크 탱크)	think tank
okno życia	(삶의 창문)	베이비박스	baby box
bezpilotowiec bezzałogowiec	bez+pilot+-owiec bez+załog(a)+-owiec (조종사 없는 것)	드론	drone
czekadełko	czeka(ć)+-dełko (기다리며 먹는 것)	전채	appetizer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조어는 고유어 내에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여러 언어에서 차용되기도 한다. 연구 대상 신조어의 생성 기원을 보았을 때 약 86%의 어휘들이 외국어나 국제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차용되어 폴란드어 어휘 체계 속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차용은 폴란드어 내에서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많은 어휘들이 대응하는 폴란드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폴란드 젊은이들의 영어 어휘 선호현상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폴란드어 어휘 체계 속의 많은 영어 어휘는 고유어의 어휘 파괴뿐만 아니라 문법체계를 혼란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의 언어학적 분석을 거친 신조어들을 영역별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을 살펴봄으로써 폴란드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4. 신조어를 통해 바라본 폴란드의 변화

언어는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 중 신조어는 언어 그 이상으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 어휘들을 통해 폴란드에 나타난 사회 변화 및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1. 사회, 문화

전체 연구 대상 어휘 중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어휘들이 사회·문화적인 면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화 관련 어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나라마다 그 시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통신망의 발달이나 국가 간 교류 증가로 상호 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kseroboy나 prekariat, freelancer, karoshi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kseroboy는 ‘자존감이 상실되고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젊은이(xeroxboy)’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음을 표현한 어휘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부정적 의미인 pokolenie Y(Y세대)²²⁾ 또는 pokolenie kopiuj-wklej(복사-붙이기 세대)라는 어휘가 있다. 이는 요즘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서적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빠르고 쉽게 구글이나 위키백과를 찾아 복사하여 제출하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다.²³⁾ 2004년 유로메이데이에서 처음 등장한 prekariat는 폴란드의 EU가입 이후 유럽 내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더욱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부정적 의미의 이 어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22)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기도 하며, 2000년 대 성장기를 거친 세대를 일컫는다. 주로 이 세대들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매우 익숙하다.

23) Y세대의 젊은이들은 ‘위키피디아 이모(ciotka Wikipedia)’나 ‘구글 삼촌(wujek Google)’한테 모든 것을 물을 수 있고, 집 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Pokolenie Y: to pokolenie kopiuj-wklej?).

지속적인 일을 갖지 않는 사회 구성원을 의미하거나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일하기 위해 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을 일컫는다. 현 폴란드 사회는 prekariat들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prekariat들은 고정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주거, 출산 및 자녀 교육 문제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²⁴⁾ prekariat와 같이 부정적 의미는 아니지만 '공부나 취업을 목적으로 큰 도시로 이주해 타지방 사람'을 가리키는 *stoik*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toik*의 증가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됨으로써 *rurbanizacja*(스프롤현상), *suburbanizacja*(교외화), *gentryfikacja*(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어휘들이 두루 쓰이게 되었다. 앞선 prekariat와 달리 긍정적 의미의 *freelancer* 또는 *wolny strzelec*는 영어의 *freelancer*를 차용한 것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정규직에 편성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회 구성원'을 뜻한다. 이외에도 '일중독자'를 의미하는 *pracoholik*과 함께 최근에는 *karoshi*라는 어휘를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karoshi*는 일본어를 어원으로 영어를 거쳐 차용된 어휘로 '과로사'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관련 기사는 과로사나 노동자들의 자살 등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폴란드 내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Konior; Kalińska). *leming*²⁵⁾은 원래 '나그네취'를 뜻하는 어휘이지만 다른 의미로 '이상이 결여된 순응주의자'를 뜻한다. 최근에는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꿈과 이상을 따르지 않는 도전적이지 않고 회사 체계에 순응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자주 쓰인다. *leming*과 상반된 개념으로 다른 언어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hipster*는 '현재의 유행이나 흐름 또는 대중문화 등을 거부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주 독립적인 사고의 사람'을 뜻한다.²⁶⁾ 이 두 용어는 정치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24) 동유럽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증가로 인해 영국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영국인들의 불만이 더욱 커졌으며, prekariat의 문제는 현재 영국의 EU 탈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25) 단정한 짧은 머리와 깔끔한 수트가 전형적인 레밍들의 외모적 특징이다.

26) *Leming haruje w korporacji, hipster mówi o sobie "freelancer". Leming mieszka w apartamentowcu, hipster - w kamienicy.* '레밍'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힙스터'는 자신을 프리랜서라고 말한다. '레밍'은 아파트에 살고 '힙스터'는 다세대 주택에 산다(Dubrowska). 레밍

데 leming은 ‘여당’을, hipster는 ‘야당’을 칭한다.

직업관련 신조어들은 기존에 없던 직업이 생겨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기존 어휘들 중 profesor나 minister처럼 남성형만 존재하던 어휘들의 여성형이 최근 들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직업을 여성들이 갖게 됨으로써 그들을 칭할 어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²⁷⁾ 하지만 다양한 접미사를 사용하여 여성형 어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접미사를 활용하여 여성형을 만들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아래 기사는 premier(총리)의 여성형이 아직 하나의 어휘로 자리잡지 못한 폴란드 사회의 고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한 가지 예이다. 이는 2014년 처음 나온 여자 총리 후보가 총리로 선출된다면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기사 내용이다.

Premier, premiera czy premierka? Językoznawca o tym, jak tytułować Ewę Kopacz.²⁸⁾ Oficjalnie: pani premier, tak jak pani minister czy pani prezydent. Bo rzeczowniki premier, minister, prezydent-są rodzaju męskiego I żeńskiego. A Potocznie? Bo mówimy dziennikarka, nie dziennikara, lekarka nie lekarza. Ale mówimy ministra. Rada Języka Polskiego w sprawie żeńskich form nazw zawodów i tytułów zwraca uwagę, że forma premierka może być odczytana jako mały premier, bo przyrostek -ka tworzy też zdrobnienia w polszczyźnie. ...Jeśli sama pani Kopacz nie będzie chciała być premierką, tylko panią premier, to musimy to zaakceptować. (Kublik)

총리, 여총리(premiera) 또는 여총리(premierka)? 언어학자는 에바 코파츠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공식적으로는: Ms minister나 Ms prezydent처럼 Ms premier이다. 그렇다면 구어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자는 dziennikarka가 아니라

과 힙스터를 바라보는 폴란드 사람들의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27) 폴란드어는 어휘의 형태에서 성(gender)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28) 2007년-2011년 보건복지부장관, 2010년-2014년 정당 PO부대표, 2011년-2014년 국회의장, 2014년 9월-2015년 11월까지 폴란드 여자 총리.

dziennikarka, 여의사는 lekara가 아니라 lekarka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성 장관은 ministra라고 말한다..... 직업이나 직위에 대한 여성형 어휘에 대해 폴란드 언어 위원회는 폴란드어 접미사 -ka는 지소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premierka는 마치 작은 총리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한다. ... 만약 Ewa Kopacz가 premierka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pani premier(Ms premier)라고 불러야만 한다.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나타나는 prekariat의 증가는 폴란드 내 eurosierota(유럽고아)의 수를 증가시켰다. 대부분의 prekariat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주로 조부모나 아는 이들에게 맡기고 떠나는데, ‘부모의 취업이민으로 인해 폴란드 내에서 조부모나 타인의 손에 의해 양육되는 아이들’을 eurosierota(유럽고아)라고 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접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가족 간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부모의 통제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관한 눈에 띄는 어휘로는 galerianka(스폰서를 찾는 소녀)가 있다. 이는 ‘성을 제공하고 대가로 비싼 물건 등을 받는 18세 이전의 어린 여자’를 일컫는 말로 주로 백화점과 같은 곳에서 스폰서를 찾기 때문에 ‘백화점’을 의미하는 galeria에 접미사 -anka를 결합시켜 만들어졌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을 제공하는 현 시대의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okno życia(베이비박스)²⁹⁾라는 어휘가 생겨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낙태가 금지된 폴란드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신생아의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활발한 문화 교류는 폴란드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 관련 신조어들의 생성에 영향을 끼쳤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양한 ingowanie어휘들의 출현이다. homing/housing, beforeing(biforing), clubbing, churching, lezing, plazing,

29) okno życia는 ‘삶의 창문’이라는 뜻으로 2006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폴란드 내에서 약 56개 정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smazing, parawaning, szafing 등이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ingowanie의 예들이다. homing/housing은 ‘집에서 하는 파티’를 뜻하고, beforing은 폴란드어로는 przedimprezowa rozgrzewka w domu로 ‘클럽이나 펌을 가기 전 집에서 하는 흥을 돋우는 파티(식전파티)’를 의미한다. clubbing은 젊은이들이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며 즐기는 것’을 말하며, churching은 clubbing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젊은이들이 ‘성스러운 미사를 거행하기에 가장 좋은 성당을 찾아다니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clubbing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로 가톨릭 신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폴란드에서 새로 생겨난 특이한 어휘이다(Gotowska). leżing은 폴란드어 동사 leżeć의 어근에서 파생된 것으로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어휘이며, smazing은 동사 smażyć(기름에 튀기다, 바르다)의 어근에 -ing를 덧붙여 ‘일광욕을 위해 오일을 바름’을, 해변을 의미하는 명사 plaża에 -ing를 붙여 만들어진 plazing은 ‘일광욕’을 의미한다. 이 세 어휘는 SNS사용에 능숙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어휘이다. 휴가와 관련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은 parawaning 역시 ingowanie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Parawaning은 parawan(병풍, 칸막이)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어휘로 ‘해변에서 개인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열린 공간에서도 타인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정작 즐기려고 하는 이들이 자리가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폴란드에서의 parawaning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Parawaning” nielegalny? Prawnik: niedługo wejdą na plażę z domkiem i też się rozłożą). Szafing은 ‘옷장’을 뜻하는 szafa에서 파생된 어휘로 ‘옷장의 안입는 옷이나 기타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아나바다 장터와 유사한 개념으로 ‘중고 장터’를 뜻하며, 어린 아이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바자회로 baby szafing 또는 szafing dziecięcy라는 어휘가 자주 쓰인다. 이외에도 piwing(맥주를 마심), pizing(글을 씀), spacing(산책), odpoczing(쉬), zakuping/szoping(쇼핑), faszering(술파티(사교모임)), uczing(공부함), łózking(주말아침 침대에서 시간을 보냄)은 연구 대상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ingowanie 현상을 보이는 어휘들이며, 지나치게 영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폴란드어 어휘가 있음에도 영어 어휘를 쓰는 현상에 대해 불필요한, 건강하지 못한 유행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Bohdanowicz). 이러한 유행어적 성격을 지닌 ingowanie 어휘들이 신조어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폴란드어 내에 나타나는 언어적 변화이므로 간과할 수는 없다.

4.2. 정치, 국제관계 및 경제

2014년 폴란드 언론에는 ‘베르쿠트³⁰⁾의 군대, 우크라이나 민병대’를 의미하는 berkutowiec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직접적인 폴란드의 정치적 문제는 아니지만 인접해 있는 우크라이나의 정세에 폴란드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러시아의 개입이 거론되곤 한다. zielone ludziki는 원뜻으로는 ‘초록색 피부를 가진 외계인’을 의미하나 비유적으로 ‘무장한 러시아 군대’를 의미한다. 이웃 나라의 내전 등에 러시아 군대가 개입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러시아군이라는 것을 알지만 러시아는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러시아군의 활동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유하는 말로 생겨났다. 이외에도 ‘2014년 많이 사용된 어휘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로 kilometrówka가 선정되었다(“Kilometrówka” słowem roku 2014). 이 어휘는 kilometr(킬로미터)에 접미사 -ówka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파생어로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차를 사용하고 킬로미터 단위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폴란드 내에서는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무원에서부터 일반 회사원들까지 이를 남용하여 그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에 ‘작은 사기(drobne oszustwo)’라고 불릴 정도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30) 199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내무부에 소속된 밀리치야의 특종경찰부대였다. 현재 베르쿠트의 크림 공화국 지역 유닛은 2014년 3월말 이래 러시아 내무부 산하에 흡수되어 옛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크림 반도에서의 베르쿠트 대원의 숫자는 약 400명이다(위키백과).

kilometrówka를 막기 위해 매년 관련 규정들이 발표되고 있다. 요리관련 텍스트에서나 자주 등장할 법한 어휘인 grillować가 정치 분야에서도 쓰이기 시작했다. 기존의 ‘그릴에 ~을 굽다’라는 의미에서 ‘특정인에게 그의 견해나 활동 등에 대해 공격적으로 질문을 퍼붓다’의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Malinowski). 주로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는 상대를 공격할 때 많이 하는 행위이며, 과격하고 예의바르지 못한 자세로 상대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인다.

개방 직후부터 EU가입 이전까지는 시장 경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대량 유입되어 사용되었으나 EU가입 이후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관련 어휘들이 새롭게 쓰이고 있다. 폴란드 구직자들에게도 대기업은 희망의 직장이다. ‘대기업’을 의미하는 korporacja의 축약어인 korpo와 ‘대기업 직원’을 의미하는 kopolud/korpoludek/korpopracownik이라는 어휘가 두루 쓰인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dilować(거래하다), robić risercz(리서치하다), brejnstormować(브레인스토밍하다),³¹⁾ dostać kejsa/case'a(projekt),³²⁾ zbrifować(브리핑하다)와 같이 업무를 위한 전문용어라기보다는 다수의 영어 어휘가 섞인 그들만의 은어인 korpomowa를 사용하기도 한다.³³⁾ 전자 거래의 발전과 확산은 폴란드의 결제 수단이나 쇼핑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카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종류의 관련 어휘들이 생겨났고 가상 화폐인 bitcoin과 관련된 어휘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karta kredytowa(=kredytówka 신용카드), karta chipowa(= chipówka/ czipówka IC칩카드), karta debetowa(= debetówka 직불카드), karta zbliżeniowa(=zbliżeniówka 비접촉식카드), karta wielowalutowa(여러 화폐 단위로 결제 가능한 카드), karta podarunkowa(기프트카드), bitomat(비트코인 거래기). 또한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온라인 결

31) '브레인스토밍하다'의 폴란드식 표현은 zastosować/przeprowadzić burzę mózgow, urządzić/ zorganizować burzę mózgow이다.

32) 영어에서 case는 '일이나 사례'를 말하지만 여기서 kejs는 przykład biznesowy(사업적인 예) 또는 projekt do zrobienia(할 프로젝트를) 일컫는다(18 najważniejszych pojęć korpomowy).

33) język koporacyjny, korpożargon, korpobelkot, korponowomowa라고 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무리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적 변화를 사회적 방언(socjolekt)라고도 한다. korpomowa에는 많은 영어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 시스템인 Paypal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쇼핑 문화인 czarny piątek(블랙프라이데이)이 폴란드 내에서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4.3. IT와 기술의 발전

정보통신 분야의 어휘들은 연구 대상 어휘 중 약 29%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 분야 다음으로 많은 신조어가 생성되었다. 여타 분야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신조어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롭게 생겨난 어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이 분야의 어휘는 다른 분야 어휘들의 생성 속도에 비해 비교적 빠른 편이기 때문에 번역 차용하거나 영어 원어 그대로를 쓰는 예를 많다. 특히 새로운 인터넷 통신이나 모바일 관련 어휘들이 눈에 띈다. 등장한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검색 사이트인 구글의 이름에서 파생된 ‘구글을 검색하다’의 의미인 (wy)googlować/guglować나 blogować(블로그하다), facebookować/fejsbukować(페이스북하다)는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구독하다’를 뜻하는 subować는 유사한 뜻의 기존 어휘인 subskrybować를 대신하여 쓰이기 시작했으며, 영어의 trolling for fish에서 유래된 trollować도 ‘인터넷 토론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의도적으로 대화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SNS의 발달은 어휘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일상과 가상공간에서의 어휘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lubić(좋다), nienawidzić(싫다)의 표현과 달리 SNS 상에서는 영어의 like와 hate에서 파생된 lajkować, hejtować/hejcić 동사를 사용한다. 또한 일상에서 ‘친구가 되다’는 przyjaźnić się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친구가 되다/친구를 맺다’는 zafriendować(się)라는 동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는 영어의 친구인 friend를 그대로 받아들여 폴란드어 문법에 맞게 동사로 만든 것으로 이것 역시 젊은 이들의 지나친 영어 선호 현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 등을 공유하는 의미로 기존의 ‘공유하다’의 의미인 udostępniać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sharing에서 파생된 szerować를 새

롭게 만들어 사용한다. 개인 SNS의 profilówka(프로필)이나 zdjęcie w tle(배경 사진)에 올릴 셀프카메라를 많이 찍으면서 관련 어휘들도 널리 쓰이고 있다. ‘셀카’ 또는 ‘셀카족’을 의미하는 ślit focia가 2014년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fotografować라는 ‘사진을 찍다’라는 어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매순간을 기록하듯 촬영하다, 셀카를 찍다’의 의미로 새로운 어휘인 focić를 사용한다. 또한 셀카를 찍는 방법을 나타내는 z rąsi(셀카봉 없이 직접 손으로 찍는), z dziubkiem(입술을 내밀고 찍는)나 grupie(그룹셀카), friendsie(친구셀카), dronie(드론셀카)와 같은 어휘들이 두루 쓰이고 있다. 이러한 SNS나 스마트폰 관련 어휘들은 최근 들어 그 쓰임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어휘들에 비해 생성 속도만큼이나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현대 폴란드어의 신조어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각 영역별 어휘를 통해 폴란드 사회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고유 신조어에 비해 차용 신조어가 전체 대상 어휘의 약 86%에 달하고 그 중 영어 차용 어휘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폴란드어 내에 영어 차용 및 선호 현상이 매우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영어 어휘 차용의 증가는 영어를 상위어로 인식함과 더불어 영어 사용에 익숙한 젊은이들의 영어 선호 현상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전체 신조어 중에서 차용어의 수가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폴란드어 어휘를 더욱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IT분야와 같이 나날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경우 무리한 어휘의 자국어화는 오히려 언중들의 어휘 사용에 효율적일 수 없기 때문에 언중들의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에서 대체 가능한 폴란드어 어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어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스노비즘적 사고는 고유어 어휘의 존재를 위협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휘 차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어 문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어로서의 폴란드어 교육에서 신조어에 대한 교육은 외국인 폴란드어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과정에서 신조어로 인한 장애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신조어의 정확한 의미와 용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단어 형성법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신조어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는 신조어의 의미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휘에 반영된 사회 전반에 걸친 변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폴란드어 교수자와 학습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한 사회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신조어의 연구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신조어 연구에서의 커다란 문제점은 현대 사회에서의 신조어의 생성 속도가 흐름을 따라 가기 어려운 정도로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모든 어휘들을 즉각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 또한 대상 어휘를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생성되어 사용되는 개념과 어휘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신 폴란드어 어휘집의 어휘들이 웹상에서 나타나는 신조어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르샤바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일차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소 구어적이고 은어적인 표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아직은 신조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행어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유행어 또한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 가치가 충분하지만 가능한 은어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교육에서는 신조어와 유행어, 은어를 구분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승희(2011), <폴란드어의 합성 방법과 신조어 합성의 경향: 명사, 형용사를 중심으로>, 《동유럽연구》 26, 29~64, 동유럽발칸연구소.

www.kci.go.kr

고승희·천승미(2013), <한국과 폴란드 젊은 세대의 영어 차용 현상>, 《동유럽발칸연구》 36, 3~35, 한국동유럽발칸학회.

유승만(2010a), <러시아어의 어휘의미 변화를 통해 본 러시아문화의 변화 양상>, 2010년도 한양대학교 HK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제3차 문화영역 국내 학술회의 “현대 러시아 대중문화의 양상과 전망”, 아태지역연구센터 발표 논문.

유승만(2010b), <현대러시아어에 나타난 언어변화: 차용어 사용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22(3), 147~163, 한국노어노문학회.

Handke, Kwiryna. (2007). “Wyraziste właściwości dzisiejszej polszczyzny codziennej.” *Studies in the Polish and Slavic Philology* 42/2007, 37~68.

Sękowska, Elżbieta. (2012). “Neologizmy słowotwórcze we współczesnej polszczyźnie(wybrane tendencje)”, *Wslavistica Complutense*, vol.12, 97~103.

Sztencel, Magdalena. (2009). “Boundaries Crossed: The Influence of English on Modern Polish”, *E-pisteme* 2(1), 3~17.

Waszakowa, Krystyna. (2009). “Derywowane anglicyzmy jako wyraz ekspansji słownictwa potocznego środowiskowego w języku mediów ostatniego ćwierćwiecza.” *Slavia Meridionalis* 09/2009, 89~102.

Waszakowa, Krystyna. (2011). “Polszczyzna przełomu XX i XXI wieku: dynamika procesów sprzyjających internacjonalizacji”.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славянским языкам* 16(1), Септ, 125~142.

Witalisz, Alicja. (2014a). “Typy pseudoanglicyzmów(na przykładzie języka młodego pokolenia Polaków)”. *Język Polski* 1/2014, 1~14.

Witalisz, Alicja. (2014b). “The Productivity of the English Derivational -ING Suffix in Contemporary Polish”. *Studia Linguistica Universitatis Jagellonicae Cracoviensis* 131/2014, 321~333.

Witalisz, Alicja. (2015). *English Loan Translations in Polish*. Peter Lang edition.

[온라인 사전]

Najnowsze Słownictwo Polskiego, Obserwatorium Językowego Uniwersytetu Warszawskiego. <http://nowewyrazy.uw.edu.pl>

[온라인 자료]

다음백과(2015). <삼포세대>. 월드와이드웹: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d20>에서 2016년 5월 19일 검색했음.

위키백과(2015). <베르쿠트(우크라이나)>. 월드와이드웹: [https://ko.wikipedia.org/wiki/%EB%B2%A0%EB%A5%B4%EC%BF%A0%ED%8A%B8_\(%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https://ko.wikipedia.org/wiki/%EB%B2%A0%EB%A5%B4%EC%BF%A0%ED%8A%B8_(%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에서 2015년 5월 20일 검색했음.

Bohdanowicz, Antoni. (2013). “Plażing, smażing – niezdrawa moda na niepotrzebne “ingowanie””, Retrieved Aug 10. 2016. from the WWW. <http://natemat.pl/71763,mikolaj-rej-zamieniony-w-zombie-zwalcza-natemating>.

Chaciński, Bartek. (Dec 04. 2002). “Słownik najmłodszej polszczyzny.Wyczesany”, Wyborcza.pl, Retrieved Feb. 08. 2017. from WWW. <http://wyborcza.pl/dzuyformat/1,127290,1001858.html?disableRedirects=true>.

Dubrowska, Magdalena. (2013). “Kim są hipsterzy, kim lemingi. Co ich łączy, co dzieli” Wyborcza.pl Warszawa Retrieved Web. Feb 09. 2017 from the WWW. http://warszawa.wyborcza.pl/warszawa/1,34889,13600027,Kim_sa_hipsterzy_kim_lemingi_Co_ich_laczy_co_dzieli.html.

Gotowska, Żaneta. (2011). “Churching, czyli wędrówki wiernych”, onet wiadomości, Retrieved 18. May 2015. from the WWW. <http://wiadomosci.onet.pl/religia/churching-czyli-wedrowki-wiernych/jck45>.

Kalińska, Agata. (Jan 06. 2017). “Zpracować się na śmierć. Samobójstwa pracowników to nie tylko japoński problem”, Money.pl, Retrieved 07 Feb. 2017. from the WWW. <http://www.money.pl/gospodarka/wiadomosci/artukul/mobbing-samobojstwa-pracownikow,234,0,2228970.html>.

“Kilometrówka słowem roku 2014”. (Jan. 07. 2015). Polska Newsweek, Retrieved May 18. 2015. from the WWW. http://wyborcza.pl/1,91446,17221082,_Kilometrowka__slo_wem_roku_2014.html.

Kołodziejek, Ewa. (2016). “Nowe słowa”, Kurier szczeciński, Retrieved Jun 30. 2016.

www.kci.go.kr

- from the WWW. <http://www.24kurier.pl/blogi/ewa-kołodziejek/nowe-slowa/>
- Konior, Ewelina. (Aug 31. 2013). “Syndrom karoshi, czyli śmierć z przepracowania”, Interia.pl, Retrived 07 Feb. 2017 from the WWW. http://praca.interia.pl/news-syndrom-karoshi-czyli-smierc-z-przepracowania,nId,016270#utm_source=paste&utm_medium=paste&utm_campaign=chrome.
- Kublik, Agnieszka. (Dec 11. 2014). “Premier, premiera czy premierka? Językoznawca o tym, jak tytułować Ewę Kopacz”, Gazeta Wyborcza, Retrieved May 18. 2015 from Web http://wyborcza.pl/1,76842,16620928,Premier__premiera_czy_premierka__Jezykoznawca_o_tym_.html.
- Malinowski, Maciej. (Jan 30. 2016). “Grillowanie w polityce”, Obcy Język Polski, Retrieved 07 Feb. 2017 from Web. <http://obcyjezykpolski.pl/grillowanie-w-polityce/>
- “Pokolenie Y: to pokolenie kopiuj-wklej?”. (Apr 11. 2013). Polskie radio trójka Retrieved Feb 09. 2017. from the WWW. <http://www.polskieradio.pl/9/2714/Artykul/821434,Pokolenie-Y-to-pokolenie-kopiujwklej>.
- Wikipedia. (2015). “Internationalism(linguistics)”. Retrieved 18. May 2015. from the WWW.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ism_\(linguistics\)](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ism_(linguistics)).
- Wikipedia Polska. (2016). “Zapożyczenia językowe” Retrieved 20. Aug. 2016. from the WWW. https://pl.wikipedia.org/wiki/Zapo%C5%BCyczenia_j%C4%99zykowe.
- Wikistownik. (2016). “Żerca” Retrieved 20. Aug. 2016. from the WWW. <https://pl.wiktionary.org/wiki/-%C5%BCerca>.
- “18 najważniejszych pojęć korpomowy”. (May 21 2016). Business insider Polska, Retrieved 07 Feb. 2017 from the WWW <http://businessinsider.com.pl/szukaj/?q=korpomowa>.

고승희

kohsh@hufs.ac.kr

www.kci.go.kr

논문 접수일: 2017년 7월 28

논문 심사일: 2017년 8월 5일~9월 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9월 11일

www.kci.go.kr